

번호	유물명	비고
1	아담스 일가의 지구의 · 천구의	
2	레인의 지구의 · 천구의	
3	트랩의 나침반	
4	세미테코로의 망원경	
5	랑그렌의 동인도지도	
6	마르티니의 일본지도	
7	한글조선전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8	항해등 각종	
9	유리부이	
10	나전칠국화모란냉쿨무늬상자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11	나전장식 부채	
12	충무공 팔사품도 병풍	
13	충무공 이순신 평생도	
14	수군조련도	
15	해주항아리	

번호	1	유물명	아담스 일가의 지구의·천구의		국적	영국
					시대	1797
크기(cm)	구 지름	너비	높이	재질	나무, 종이 등	
	45.5	60.2	85.0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지구의 천구의 </div>					
유물설명	<p>영국의 아담스 일가(Adams Family; George Adams 1709~1772, Dudley Adams 1762~1830)가 제작한 항해용 지구의와 천구의 세트이다. 지구의의 제작 시기는 카르 투슈에 1797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지구의 제작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천구의 는 제작년도가 적혀있지 않으나 지구의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지구의의 제작년도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p> <p>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구의·천구의의 크기를 살펴보면 구의 직경이 46cm이고, 스탠드를 포함한 전체 높이는 약 85cm로 스탠드가 바닥에 직접 놓이는 플로어 글로 브에 해당한다. 구 외면에 그려져 있는 지도는 동판 인쇄로 고어를 제작한 다음 그 위에 채색하였다. 두 글로브의 고어는 남북으로 12개씩 총 2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제작 후 글로브에 부착하였다. 아담스의 천구의는 회전축을 황도를 기준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고어의 기준점이 되는 북극과 천구의가 회전하는 축이 다르다. 따라서 고어의 기준점은 지구의 남·북극과 같고, 회전축은 황도의 남·북극이 되는 특징이 있다. 지구의의 지명은 모두 라틴어로 기술되어 있다.</p> <p>스탠드에는 황동에 새긴 시각환(Hour dial)과 자오환이 있고, 수평환에는 황도 12궁 (Zodiac), 달력, 방위와 바람의 방향 등이 표기되어 있다. 시각환은 자오환이 아닌 다른 축에 있으며, 3개의 다리와 수평환을 사등분하는 4개의 팔(Quadrant)을 연결하는 중심축(Baluster)이 있다. 스탠드는 마호가니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바닥 부분에 항로의 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나침반이 같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영국에서 제작된 글로브에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유명했던 항해가의 항로를 표시하는데, 아담스 지구의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탐험가이자 항해자들의 항로와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의 사망 시기 및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아담스 지구의에는 바다에서 부는 탁월풍을 표시하고 있다. 탁월풍은 다른 용어로 항상풍이라고 하며, 아담스 지구의에는 무역풍과 계절풍인 인도의 문순이 표현되어 있다.</p>					

번호	2	유물명	레인의 지구의·천구의			국적	영국
						시대	19세기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나무, 종이, 가죽
	7.8	7.8					
사진							
							
유물설명	<p>니콜라스 레인이 제작한 소형 지구의와 천문의로 각각 케이스가 따로 있다. 케이스의 전체적인 형태는 나무를 이용하여 반원형의 구 2개를 포개어 만들었으며 한쪽 면에는 작은 경첩을 달고 반대쪽에는 'U'자형의 고리를 달아 케이스 잠금장치를 만들었다. 각각의 케이스 외면에는 가죽을 덮어 고급스럽게 제작하였다. 지구의 케이스 내면은 양귀비 한 송이를 그리고 테두리에는 적색 안료를 발라 마무리하였다. 천구의 케이스 내면은 황도 12궁 별자리가 그려져 있으며, 지구의 케이스와 같이 적색 안료를 발라 완성하였다.</p> <p>지구의에는 위도, 경도 및 황도 등이 그려져 있고 태평양이 표시된 위쪽에는 '레인사가 향상시킨 글로브(LANE's Improved GLOBE.-LONDON)'라고 적혀 있다. 한국은 'Corea'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으나 동해에 대한 명칭은 생략하였다. 천구의에는 위도, 경도 및 황도가 지구의와 동일하게 그려져 있고 각 위치에 따른 별자리와 상징물이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서양의 글로브 제작기술과 당시의 세계지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p>						

번호	4	유물명	세미테코로의 망원경		국적	이탈리아
					시대	1750년
크기(cm)	지름		길이		재질	금속, 종이, 유리
	5.0		31.0(최대 72.0)			
사진						
유물설명	<p>이탈리아 장인인 세미테코로(Leonardo Semitecolo)가 항해용으로 제작한 망원경이다. 경통 4개를 이어 붙여 접었다 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망원경 양 끝부분은 여닫이 마개를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닫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붉은색으로 장식된 종이에 천공하여 만든 장식은 제작자인 세미테코르의 독특한 문양으로 서명도 함께 새겨져 있다.</p>					

번호	5	유물명	랑그렌의 동인도지도			국적	네덜란드
						시대	1595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종이		
	55.0	41.8					

사진



유물설명

랑그렌(Jacob van Langeren)의 동인도 지도는 인도와 아시아에서 약 7년 동안 머무르며 각종 지도를 수집했던 린스호텐(Jan Huyghen Van Linschoten)의 『동양수로지(Itinerario)』에 수록된 지도로, 실 제작자는 랑그렌이다. 이 지도의 경우 위쪽이 동쪽을 가리킨다. 인도와 동북아시아 3국을 채색하여 국가를 구분하고, 바다와 대륙에는 동물과 산맥, 항해 중인 선박을 그려 넣었다. 지도 곳곳에 나침도 2개와 상상 속의 바다 동물들을 그려 넣었다. 지도표제에는 포르투갈 뱃길안내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해도와 항해도를 참조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당시 유럽인들은 우리나라를 섬나라로 이해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중국과 연결된 반도가 아닌, '하나의 섬(ILHA DE COREA)'으로 표기하고 형태는 둥근 원으로 나타냈다. 그 당시 지도 제작자들은 잘 모르는 지역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해진다. 원 안에는 코라이 해안(Costa de Coray)과 도적의 섬(I.dos Ladrones)이라 표기하였으며, 상단에 코라이에 속한 섬을 작게 그려 넣었다.

번호	6	유물명	마르티니의 일본지도			국적	네덜란드
						시대	1655년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종이		
사진							
유물설명	<p>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는 1643년 중국에 도착하여 1650년까지 머물면서 포교활동과 함께 중국 지리를 연구하였다. 중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에 머무는 동안 중국 지도를 제작하였고, 블라우와 함께 1655년에 『신중국 지도첩(Novus Atlas Sinensis)』을 출판하였다. 이 지도는 지도첩 안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그 외 주변국을 그렸다.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반도(COREA PENINSULA)로 표기하였고, 제주도를 풍마(I.Pungma)로 표기하였다. 또한, 남해안 지역의 작은 섬들까지 그려 넣었으나, 여전히 형태는 부정확하다. 그렇지만 이 지도첩에는 우리나라 팔도 행정 중심지의 경·위도 좌표가 수록되어 있어, 이전의 지도에 비해 훨씬 과학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p> <p>이전까지 섬으로 표기되었던 우리나라가 대륙과 이어진 반도국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른 시기 지도 가운데 하나이다.</p>						

번호	7	유물명	한글조선전도			국적	
						시대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사진



유물설명

현재까지 알려진 한글 지도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지도로 추정된다. 안음(安陰, 경남 함양군 안의면의 옛 지명)의 지명이 18세기 이후 안의安義로 바뀌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 지도의 연대는 18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지도를 살펴보면 산은 삼각형 형태의 크고 작음에 따라 높리와 산맥을 짐작케 하고 있으며, 물길을 따라 지명과 서·남·동해의 주요 섬 및 포구가 기록되어 있다. 육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든 물길을 내륙 깊숙하게 그려 물길에 따른 이동을 강조하고 있다.

지도 뒷면에는 '경오년 신수'라고 하여, 경오년의 점괘를 메모하였는데, 경오년은 1750, 1810, 1870, 1930년이다. 지도 뒷면에 썼으므로 지도가 나온 시기는 경오년보다는 이른 시기이다.

미국의 유명한 한국학 학자인 게리 레드야드(Gari Keith Ledyard)가 논문으로 소개하면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해안지역의 지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울릉도·우산도(독도)·제주도 등 우리나라 섬 지역과 함께 대마도가 표기되어 있다.

번호	8	유물명	항해등 각종			국적	대한민국
						시대	광복 이후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철제, 유리		
사진							
							
	기증 671-2			해양 865-1			
	기증 671-1			해양 865-2			
유물설명							

번호	9	유물명	유리부표			국적	대한민국
						시대	광복 이후
크기(cm)	지름	세로	높이	재질	유리, 복합재질		
	33.7						
사진							
							
	투명 혹은 반투명의 구형태 유리부표이다.			바다에 띄워 표식으로 사용했다.			
	유물설명						

번호	10	유물명	나전칠국화모란넝쿨무늬상자			국적	
						시대	18세기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나무, 나전 등		
	39.1	24.7	10.6				
사진							
유물설명	<p>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나전칠국화모란넝쿨무늬상자는 소나무와 황동을 재료로 하여 나전과 옷칠 기법 및 맞짜임으로 제작한 직사각형 상자이다. 특히 상자 밑면을 제외한 전체면에 넝쿨로 연결된 국화모란문을 곱음질과 줄음질로 시문한 뛰어난 나전기법을 지닌 작품이기도 하다. 윗면에는 모란과 국화를 당초문으로 아름답게 포치하였는데 이 문양은 앞면까지 연속되어 있으며, 측면과 뒷면의 경우에는 국화당초문만 시문되어 있다. 장식(裝錫)으로는 각 모서리 마다 5판화형 거멸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무문의 약과형 앞바탕은 4개의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낙목은 부엉이 형태 및 X자가 선각된 뽕침대 아래쪽 측면에 ‘ㄷ’자형 홈을 두어 아래쪽 붙박이형 잠금장치를 옆으로 밀거나 닫으면 개폐되게 고안되어 있기도 하다.</p> <p>뒷면은 위쪽 3분의 1 지점에 2개의 약과형 경첩을 달아 뚜껑을 여닫게 만들어져 있으며, 내부에는 고급스럽게 정제칠이 되어 있어 아마도 귀중한 서류 등을 담아 두는 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p> <p>나전칠국화모란넝쿨무늬상자는 16~17세기에 제작된 개인 소장 나전모란당초문상자에서 간취되는 나전과 옷칠 및 시문 기법에서 그 양식적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개인 소장품은 모란꽃 표현이 사실적이며 넝쿨 또한 정연하게 포치되어 있는데 반해 국립해양박물관 소장품은 모란과 국화가 도안화되어 있고 넝쿨이 자유분방하게 흐트러져 있는 점에서 그 제작시기가 다소 뒤쳐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편으로는 낙목과 5판화형 거멸감잡이 양식에서 17세기에 제작된 일본민예관 소장 흑갈칠나전모란당초문함과 17~18세기에 제작된 신유철 소장 나전모란당초문상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낙목 아래쪽 측면에 ‘ㄷ’자형 홈을 둔 뽕침대와 붙박이형 잠금장치의 경우 18세기 서류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식 양식이기도 하다.</p> <p>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나전칠국화모란넝쿨무늬상자는 나전 시문양식과 감잡이 및 낙목과 잠금장치 등의 장식 양식을 고려해 볼 때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p>						

번호	11	유물명	나전장식 부채			국적	
						시대	조선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65.9	92.3					
사진							
유물설명	<p>손잡이에 옷칠 후 나전으로 장식한 등글부채이다. 일반적인 부채의 크기보다 상당히 큰 형태로 부채살은 대나무로 얇게 쪼개 틀을 잡은 다음 한지를 이용해 마무리하였다.</p>						

번호	12	유물명	충무공 팔사품도			국적	
						시대	조선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41.8	16	183.5				
사진							
유물설명	<p>팔사품은 명나라 신종(神宗)이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에게 하사한 물품으로 보물 제 44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통영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팔사품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 수군 도독 진린(陳璘)이 신종에게 이순신의 전공을 보고하자 신종이 이순신에게 하사한 8종 15점의 물품을 말한다. 이 물품들은 도독인(都督印)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쌍을 이루어 총 15점이다.</p> <p>팔사품도는 이 팔사품을 그림으로 그린 뒤 병풍으로 제작한 것인데, 팔사품도의 원형은 8폭(제1양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다가 이순신이 유명해진 뒤 2폭을 추가하여 10폭(제2양식)으로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자료는 제2양식의 팔사품도 병풍이다.</p>						
번호	13	유물명	충무공 이순신 평생도			국적	
						시대	일제강점기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173.2	592.4				
사진							
유물설명	<p>충무공 이순신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그의 일생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모아서 그린 12폭 병풍이다. 유년시절의 병정놀이모습, 거북선 제작, 귀향 가는 모습, 해전, 임진왜란 등 충무공 이순신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p>						

번호	14	유물명	수군조련도			국적	
						시대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사진							
유물설명	<p>조선 후기 수군의 훈련 모습을 그린 8폭 병풍이다. 삼도수군통제사영은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대규모 훈련을 개최하였으며, 이때에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의 수군이 모두 집결하였다. 특히, 봄 훈련인 춘조(春操)에는 군사 3만여 명이 통영에 집결하고, 판옥선과 거북선 등 500여 척의 함선이 동원되었다.</p> <p>수군조련도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 수군의 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삼도주사도독사령선(三島舟師都督司令船), 삼도대중군사령선(三島大中軍司令船), 부선(副船), 좌·우탐선(左右探船), 좌·우한선(左右翰船) 및 소속 편대, 그리고 중영(中營)·전영(前營)·좌영(左營)·우영(右營)·후영(後營) 등 오영(五營)에 소속되어 있는 전선들이 그려져 있다.</p> <p>또한, 세부적으로 묘사된 각 전선은 저마다 수군깃발을 앞·뒤로 갖추고, 깃발에는 선단 체제에서의 위치와 소속 지명이 명기되어 있다. 전선의 앞 선두(船頭) 부분은 수군 깃발을 통해 이 전선의 수군 편제에 어느 지역 소속의 전선임을 알 수 있고, 선미(船尾) 부분은 흑색 바탕에 구분이 가능한 글자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특히, 선두 부분 깃발을 적색(前)·황색(中李)·흑색(後李)·녹색(左李)·백색(右)으로 묘사함으로써, 수군 편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p>						

번호	15	유물명	해주항아리			국적	
						시대	광복이후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토도		
사진							
유물설명	<p>황해도 해주지역에서 생산한 청화철화백자항아리(靑畵鐵畵白磁壺)로 동체 전면에 코발트와 산화철 안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항아리의 형태를 살펴보면 구연부는 직립한 구연 끝을 둥글게 말아올렸다. 동체는 상단은 넓고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전체적인 기형이 용기(甁器)와 비슷한 모습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고루 시유하였으나 일부 항아리의 경우 기면에 기포가 생성되는 등 용융상태가 불량하다. 문양은 기물 전면에 물고기(漁文)와 국화문(菊花文)을 각각 배치하였다. 물고기는 해주항아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양 가운데 하나로 다산의 상징, 출세의 염원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견부는 문양대로 구획 후 파도문을 배치하였으며 구연부에서 견부방향으로 파초문을 그렸다. 동체부에 그려진 물고기의 형태는 머리는 짧고 주둥이는 뾰족하게 벌어져 있으며, 주둥이 사이로 날카로운 이빨과 작은 물고기를 반쯤 물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물고기의 몸체는 전면에 청화 안료를 이용하여 비늘을 그려 넣은 다음 각각의 비늘은 철화 안료로 점을 찍듯이 채워 넣었다. 항아리의 뒷면에는 화분에 담겨진 국화를 전면에 배치하여 장식하였다. 다섯 개의 국화 봉우리를 2단으로 도식적으로 그렸고 국화잎은 철화와 청화안료를 번갈아 스탬프를 찍어 표현하였다.</p> <p>해주항아리에서 나타나는 물고기 표현 방식은 크게 물고기 단독으로 그린 것, 두 마리가 X자 형태로 교차하는 것, 물고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물고기가 군집을 이루고 다니며 헤엄치는 것, 물 속 풍경 등 물고기와 물 속 풍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방식은 19세기 청화백자에서 지느러미 및 아가미 일부만을 소략하게 표현하는데 비해 해주항아리는 물고기 전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해주백자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p>						